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 마치면 밥값한 것 같아요”

구로종합복지관 정전숙·오경중 봉사자

“부처님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봉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소희)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인 정전숙(73·사진 우) 보살과 오경중(46·사진 좌) 거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정 보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3회 가량 복지관 급식소에서 음식 조리 및 배식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35개 이상의 도시락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의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정전숙 보살은 자신의 활동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활동한 것이 벌써 20년이다. 깊은 불심이 아니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정전숙 보살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낀다. 아주 드물게 봉사활동에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복지관이나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험에 재직 중인 오 거사도 이번 일 때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오 거사는 3달 전부터 구로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수 년전 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 뜻을 전파해왔다.

오경중 거사도 “시간이 많다고 봉사활동에 나서서 사람이 많지 않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의 중심이다”라며 정전숙 보살의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두 사람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복지관에서 조리하는 음식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간다”고 밝혔다. 오 거사도 “여기서 실컷이 하듯이 집에서 했으면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안 일을 몇 배는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숙 보살과 오경중 거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신앙이 뒷받침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줄도 모르고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처럼 불행법을 실천하고 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오 거사는 “제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 노력하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봉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봉사를 통한 실천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 거사가 평소에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주변 동료들도 잘 알고 있다.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묵묵히 포교사의 몫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오경중 거사는 봉사를 마치고 나면 밥값한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함을 느낀다. 봉사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며, 불심이 말바탕이 됐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불교가 복지를 통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의 중심이다”라며 정전숙 보살의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두 사람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복지관에서 조리하는 음식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간다”고 밝혔다. 오 거사도 “여기서 실컷이 하듯이 집에서 했으면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안 일을 몇 배는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숙 보살과 오경중 거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신앙이 뒷받침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줄도 모르고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처럼 불행법을 실천하고 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오 거사는 “제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 노력하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봉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봉사를 통한 실천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 거사가 평소에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주변 동료들도 잘 알고 있다.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묵묵히 포교사의 몫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오경중 거사는 봉사를 마치고 나면 밥값한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함을 느낀다. 봉사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며, 불심이 말바탕이 됐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불교가 복지를 통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의 중심이다”라며 정전숙 보살의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두 사람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복지관에서 조리하는 음식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간다”고 밝혔다. 오 거사도 “여기서 실컷이 하듯이 집에서 했으면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안 일을 몇 배는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숙 보살과 오경중 거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신앙이 뒷받침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줄도 모르고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처럼 불행법을 실천하고 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오 거사는 “제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 노력하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봉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봉사를 통한 실천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 거사가 평소에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주변 동료들도 잘 알고 있다.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묵묵히 포교사의 몫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오경중 거사는 봉사를 마치고 나면 밥값한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함을 느낀다. 봉사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며, 불심이 말바탕이 됐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불교가 복지를 통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의 중심이다”라며 정전숙 보살의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두 사람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복지관에서 조리하는 음식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정 보살님은 이곳 봉사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간다”고 밝혔다. 오 거사도 “여기서 실컷이 하듯이 집에서 했으면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안 일을 몇 배는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숙 보살과 오경중 거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신앙이 뒷받침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줄도 모르고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처럼 불행법을 실천하고 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원효 성사 45대 손... 불교인연은 나의 숙명

“주5일제 대비, 어린이포교 활성화 주력하겠다”

교과부 불자회·공불련 회장 취임한 설동근 교과부 차관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됩니다. 교과부불자회가 앞장서서 사찰시설을 활용한 어린이 주말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불자회(회장 설동근, 이하 교과부 불자회)가 8월 25일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창립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 30여 명도 함께 참석해 공무원 불자로서의 역량과 활동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설동근 차관은 “불교의 특성상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게 활동에 와 타 종교에 비해 불자 공무원들의 활동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비판

들이 적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사회 활동을 펼치고 부처님 법을 전하며, 불자회 간에도 활발한 유대관계를 맺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동근 차관은 교과부 불자회 회장에 이어 10월에는 공불련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설 차관은 “앞으로 교과부 불자회와 공불련이 힘을 모아 활동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불련 회장에 취임하면 교과부와 더불어 공불련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불련 회장으로 활동 중인 하복동 감사위원은 “공불련 회원들이 서울·경기 지역에만 집중되고, 지

역 간 네트워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조직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부처를 둔 교과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근 차관은 ▷각 부처간 네트워크 강화 ▷각 회장단 상시 모임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설 차관은 “교과부 회원들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흥천사 주지 정년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등과 상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관한 불자들의 활동에 대해 계획할 것”이라며 “어린이 포교,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설 차관은 “나는 원효 성사의 45대 손으로 숙명처럼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한때는 동진출가해



8월 25일 하복동 감사위원(우)은 제7대 공불련 회장에 취임하는 설동근 차관에게 만공 스님의 달마도를 전달했다.

스님되기를 원으로 삼기도 했다”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내가 지금 교과부 차관 자리까지 오른 것 또한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말했다.

설 차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정책에 접목시켜 국민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하심하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이라며 “일체의 탐진치를 버리고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뽕처럼 진정성을 갖고 일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고령사회 대안 일본에서 찾는다

9월 19일, 연꽃마을... 한·일 노인복지전문가 세미나 개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9월 19일 '제2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 세미나'를 용인시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꽃마을 직원들을 비롯해 일본 도요대학 교수진 및 학생 등 국내외 노인복지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준비'를 주제로

로 후투가와 코준(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도요대학 교수가 기조강연 하며, 양국의 저명한 노인복지학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1부에는 '한·일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과 과제'에서 >노무라 도요대학 교수가 '일본 치매 어르신에 예방과 치료의 방법과 과제' >다카노 도요대학 교수가 '케어매니지먼트의 실현'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주제로 도요대 스즈키, 요네다, 시게나리 교수가 발제하며, 3부에는 '일본과 한국의 장래문화의 현황과 과제를 비교 분석'에 대해 도요대 이노우에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각현 스님은 "일본은 초고령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함께 현실 상황을 공유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양국의 저출산 고령사회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바람직한 복지 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아름다운동행·조계사, 종로구민 자활 지원에 힘보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기금 전달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조계사(주지 토진)가 종로구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을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중)에 8월 23일 전달했다.

전달된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추진 중인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토진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은 저소득 시민이 통장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매칭 적립해 주는 자립형 자상형성지원 사업이다. 현재 종로구에는 250여명의 시민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영중 종로구청장은 "조계사와 아름다운동행의 관심과 지원에 감



사드린다. 기금 지원은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이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제파와나 방배선원 이전 법회

제파와나 방배선원(선원장 임목)이 8월 21일 서울 방배동에 새롭게 거처를 마련했다.

새로 이전한 제파와나 선원은 1층은 법당, 2층 공방으로 활용되며, 현재 지하1층에도 봉사가 진행중에 있다.

임목 스님은 기념법회에서 “방

배동에 새로 마련한 제파와나 선원이 부처님의 법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중심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동 제파와나선원에서 매달 첫째 주 '수행자 입문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02)595-5115 천진영 기자

중앙승가대 불교중앙도서관 개관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9월 6일 불교중앙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1년 여 만에 완공된 도서관은 연면적 4624.29㎡(1만4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이다. 불교중앙도서관은 제5대 총장 태원 스님이 중앙승가대의 장기적

인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도서관 사서 윤인숙 계장은 “각 계각층의 불자들의 도움으로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031)980-7759 ~60 천진영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장 자승)은 8월 25일 전법회관 6층에서 '불교의 마음치유(수련) 프로그램과 정신적 복지'를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박기주(동사법 수련

도슨)씨와 김용환 실장(한마음과학원 기호조정실)이 불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마음치유(수련) 프로그램인 '다사법'과 '한마음공생생전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나은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Palgongsan Festival' (팔공산 승시(僧市) 축제) featuring various activities like 'Samsil Market', 'Experience Field', and 'Cultural Market'.